

# “기업밀착 지원, 규제환경 개선… 깨어있는 벤처 대변자”

##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취임

‘낮은자세, 열린마음’ 포부 전해  
“대외환경 변화 부합할수 있어야  
유연한 사고, 실행력 기반 능동대응”

벤처기업협회 제10대 회장을 맡게 된 강삼권 포인트모바일 대표가 ‘벤처기업의 깨어있는 대변자’를 자처하며 신산업 영역과 규제 이슈에 대해 선제적이고, 적극 대응해나갈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세계 최고의 벤처생태계 조성 노력, 민간 벤처생태계 허브역할 수행, 창업 문화 조성 및 기업가정신 확산 등도 약속했다.

‘낮은자세, 열린마음’으로 벤처업계를 위해 2년간 힘껏 뛰어나겠다고 취임 포부를 전하면서다.

벤처협회는 25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협회 대회의실에서 ‘제26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벤처기업협회 전임 안건준 회장(왼쪽)과 신임 강삼권 회장이 25일 열린 이·취임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벤처협회

밝혔다.

8·9대를 역임한 안건준 회장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강삼권 신임 회장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트렌드와 국내 경영환경을 경험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선 벤처협회가 달라진 대외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협회는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유연한 사고와 신속한 실행력으로 변화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벤처기업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기업밀착형 지원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2벤처붐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임기 동안 벤처생태계의 회수시장 다양화, 우수 인재의 벤처 유입,

규제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달 중순부터 민간주도의 벤처확인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협회를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 지정하 바 있다.

강삼권 회장은 “벤처확인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협회가 벤처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지속성장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회원사들이 차별적으로 누릴 수 있는 실질적 혜택도 새로 만들고, 기존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회원사 만족도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 저변 창업 문화 조성 ▲대학과 연구원 창업 활성화 ▲청년층에 대한 체계적인 기업가정신 교육과정 마련 등을 위해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강 회장은 원광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이후 2006년 산업용PDA를 제조하는 포인트모바일을 창업했다. 포인트모바일은 지난해 하반기 코스닥에도 입성

했다. 포인트모바일의 PDA는 전 세계 80여 개국으로 팔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벤처협회는 금성볼트공업 김선오 대표를 수석부회장으로 추가 선임했다. 협회의 수석부회장은 3명이다. 김 선오 대표는 1978년 사업을 시작해 현재 산업용·항공·방산·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조향장치의 볼트·너트, 펌프용 부스터 등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500만달러 수출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아울러 협회는 ▲혁신 벤처생태계 선도 ▲벤처기업 역량강화 ▲창업문화 조성 및 사회적 인식제고 ▲회원서비스 및 네트워크 강화를 세부 전략과제로 설정하는 등 올해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도 정했다.

협회 관계자는 “소셜벤처와 모빌리티 분야의 신규 임원진을 영입해 선배 벤처와 후배 창업업 간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혁신 신산업분야의 이슈를 적극 대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독일·이스라엘서 기업 혁신기술 배운다

중견연, 2021 정기총회 열어  
명예특별회원 2명 위촉

중견기업계가 하든철플의 나라 독일과 혁신 벤처 강국 이스라엘의 혁신 기술 역량을 배우기 위해 나섰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24일 ‘2021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이갈 에를리히 요즈마그룹 회장을 명예특별회원으로 위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통해 중견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및 기술 혁신 지원을 위해 독일 연방 정부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2019년 타결된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해 이스라엘 벤처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신사업·신기술 발굴 등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슈뢰더 전 총리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독일 경제 구조 개혁과 미래 성장 전략으로서 ‘하르츠 개혁’과 ‘어젠다 2010’을 강력하게 추진해 독일을 유럽 연합(EU)의 중심 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구축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이 지난 24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1년도 정기총회’에서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에를리히 요즈마 그룹 회장을 명예특별회원으로 위촉하는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중견연

1993년 요즈마펀드를 출범시킨 에를리히 회장은 벤처캐피털 혁명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계 1위 혁신 벤처 창업 국가로 이끈 핵심 인물이다.

코로나19로 위축식에 참석하지 못한 슈뢰더 전 총리와 에를리히 회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국 간 교류·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 한샘, 50년 욕실 노하우 ‘바스바흐’ 선보

한샘이 초고가 욕실 시장을 겨냥해 1000만~3000만원대로 구성된 ‘바스바흐(BATHBACH)’를 새로 선보였다.

부엌과 인테리어 가구, 리하우스 등 인테리어 전분야에 걸쳐 지난 50여년간 갖춰온 디자인과 상품 기획, 설계·시공력 등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욕실 분야에서도 세계 최정상급 프리미엄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해서다.

25일 한샘에 따르면 ‘바스바흐(BATHBACH)’는 지난 2006년 출시한 부엌 가구 브랜드 ‘키친바흐(KITCHENBACH)’에 이은 자사의 두 번째 프리미엄

브랜드다. 프리미엄 부엌에 대한 노하우를 욕실 공간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한샘은 국내외에서 엄선한 고급 자재와 한샘의 차별화된 3D 상담설계 서비스를 바탕으로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욕실 공간을 제안한다는 전략이다.

먼저, ‘바스바흐’는 대형 이태리 수입 타일 등을 적용한 욕실 공간을 선보인다. 기존 한샘 욕실대비 시공이 까다롭지만 더욱 다양한 디자인의 타일로 고급스러운 욕실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 경기전망 두달째 상승… 中소업체 봄 오나

중기중앙회, 3월 경기전망 조사  
SBHI 76.2기록… 전월비 6.9p ↑  
1월 중기수출 전년대비 18.4% 상승

3월이 다가오면서 중소기업 경기가 봄과 함께 회복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가 2개월째 상승했고, 1월 수출도 대기업 등에 비해 크게 늘어나며 기대감이 커지면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3월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해 25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3월 업황전망경기전망지수(SBHI)는 76.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월 65, 2월 69.3을 각각 거쳐 다시 6.9포인트(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올랐다.

그중에서도 제조업이 1월 75.3, 2월 76.6, 3월 86.3으로 회복세가 비제조업에 비해 빠른 모습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월15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 비수도권이 0.5단계씩 완화되고 영업시간 연장 등의 조치가 추가로 취해지면서 전산업 전체적으로 체감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다만 올 3월 SBHI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3월의 78.5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1월 중소기업 수출도 크게 늘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이날 펴낸 ‘KOSBI 중소기업 동향 2월호’에 따르면 중소기업 수출(전년동기대비)은 지난해 10월 -2.5%에서 12월 12.1%, 12월 14%로 각각 플러스(+)를 기록한 이후 올해 1월 들

어선 18.4%로 크게 늘며 3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기업이 같은 기간 0.1→11.4→10%를 각각 기록한 것에 비해 증가세가 더욱 높다.

특히 1월로 넘어오면서 대중국 수출이 33%로 크게 늘었고, 미국 수출도 13.3% 증가하며 눈에 띄었다.

중기연구원은 “중소기업들이 품목 다변화와 온라인 채널 확대 등을 통해 변화된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수출과 늘어나는 온라인쇼핑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청년, 여성과 숙박음식점업,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고용 감소가 이어지고 있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일경험 지원 확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고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 인천 송도에 국내 1호 ‘스타트업 파크’

중기부, 이달 77개 기업 입주

혁신 창업과 글로벌 진출을 돕는 개방형 클러스터인 ‘스타트업 파크’가 국내 1호로 인천 송도에 처음 들어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인천시와 함께 조성한 인천 스타트업 파크가 25일 오후 개소식을 갖고 스타트업 육성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파크’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프랑스의 스테이션 에프(Station-F), 중국의 중관촌과 같이 창업벤처 생태계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개방적 혁신 창업공간으로 1년 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번 문을 열게 됐다. 이달 말까지 77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인천 스타트업 파크는 인스타I, 인스

타 II, 인스타 III의 3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인스타 I은 인천시가 인천테크노파크로, 인스타 II는 신한금융과 셀트리온이 각각 운영한다.

인스타 III는 스타트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각종 편의시설을 추가로 리모델링해 구축할 계획이다.

인천 스타트업 파크에는 사무실 60여개, 오픈공간 150여개, 회의실 40여개를 갖추고 있으며 지능형사물인터넷(AIoT) 실증지원랩, 다목적홀, 코칭룸과 수면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들어서었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 기술기반 스타트업과 신약개발 등 바이오 분야 혁신기업 230여개 기업에 대한 실증지원사업, 대학연계 기술지원, 전문가 멘토링과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시몬스

## ‘더현대 서울’ 매장 오픈

시몬스가 서울 여의도에서 26일 정식 오픈하는 ‘더현대 서울’에 매장을 새로 연다.

25일 시몬스에 따르면 ‘시몬스 더현대 서울점’은 지상 전 층이 자연 채광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8층 건물 가운데 4층에 꾸며졌다. 방문객들은 햇살이 비치는 개방감 있는 매장에서 시몬스 침대 매트리스와 베딩 제품을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다.

특히 매장이 들어선 영등포 상권은 일평균 유동인구만 15만 명에 이르는 데다 강서·마포·용산 등 1차 상권과 2·3차 상권인 경기·인천까지 상권이 광역화되고 있어 향후 다양한 소비자층의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호 기자